

**Session 10 David's Courage and Resolve at Keilah (1 Sam. 23; Ps. 54)**  
**제 10 장 그일라에서의 다윗의 용기와 결심 (삼상 23 장; 시 54 편)**

**I. DAVID FLED TO KEILAH, ZIPH, AND MOAN (I SAM. 23)**

다윗이 그일라, 십, 마온으로 도망가다 (삼상 23 장)

- A. David had recently experienced great fear in Gath followed by the trauma of the massacre at Nob, and despair in Adullam. Overcome with fear in Gath (Ps. 34), he escaped to Adullam and faced his despair (Ps. 57 and 142), also struggling there with shame after the events in Nob (Ps. 52).

다윗은 최근에 가드에서 큰 두려움을 경험했고, 이후에 농에서 있었던 대 학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아둘람에서의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다. 가드에서의 두려움을 극복한 이후에 (시 34 편), 그는 아둘람으로 도망가서 절망과 맞서야 했고 (시 57, 142 편), 또한 농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수치심을 겪어야 했다 (시 52 편).

- B. In Psalm 142, he wrote that “sorrow overwhelms me (v. 3), nobody understands me or cares about me (v. 4), I feel very low as my enemies are stronger than me (v. 6), and my soul is in a prison (v. 7).

시 142 편에서, 그는 “내 영이 내 속에 상했으며 (3 절), 아무도 내 영혼을 돌보지 않으며 (4 절), 나를 핍박하는 자가 나보다 강하니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6 절), 그리고 내 영혼이 옥에 갇혀 있다”고 기록했다.

- C. In Psalm 57, David wrote, “My soul is among men who are like devouring lions (v. 4), they have prepared a net to trap me so that I fail (v. 6), but my heart is steadfast, O God (v. 7).

시 57 편에서 다윗은 기록했다, “내 영혼이 사자(lion) 가운데 살며 (4 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나 (6 절), 하나님이며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7 절).”

- D. As we put these four psalms together, we get a picture of how David felt just before Keilah. Now David is described as rising up with boldness and tenacity to fight Philistines. How did he do this?

우리가 이 네 편의 시편을 함께 볼 때에, 우리는 다윗이 그일라 바로 이전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이제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담대함과 끈질김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한 것일까?

**II. DAVID RESCUES KEILAH (1 SAM. 23:1-5)**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다 (삼상 23:1-5)

- A. I cannot imagine how such a young man could have the resolve to engage in a war against the Philistines to defend a city of Israel having recently been in great fear and despair, feeling alone, and under the pressures of leading 600 distressed and discontent men.

나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최근에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었고, 외로움을 느꼈으며, 600 명의 절망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을 이끄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음에도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블레셋과 싸울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상상할 수가 없다.

<sup>1</sup>They told David, saying, “Look, the Philistines are fighting against Keilah, and they are robbing the threshing floors.”<sup>2</sup>Therefore David inquired of the LORD, saying, “Shall I go and attack these Philistines?” And the LORD said to David, “Go and attack the Philistines, and save Keilah.”<sup>3</sup>But David’s men said to him, “Look, we are afraid here in Judah. How much more then if we go to Keilah against the armies of the Philistines?”<sup>4</sup>Then David inquired of the LORD once again. The LORD answered him and said, “Arise, go down to Keilah. For I will deliver the Philistines into your hand.”<sup>5</sup>And David and his men went to Keilah and fought with the Philistines, struck them with a mighty blow, and took away their livestock. So David saved the inhabitants of Keilah. (1 Sam 23:1-5)

<sup>1</sup>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sup>2</sup>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sup>3</sup>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sup>4</sup>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sup>5</sup>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삼상 23:1-5)

- B. **Keilah:** Keilah was a fortified city in the territory of Judah, that is, a city with a military presence and fortress. After the enemy captured a fortified city, the villages in the area would be easily captured. David returned to Judah in response to a prophetic word given by the prophet Gad (22:5).

**그일라:** 그일라는 유다 땅에 있는 요새화된 도시였으며, 군대와 성채가 있는 곳이었다. 적들이 이 요새화된 도시를 점령한 이후에는, 이 지역에 있는 마을들은 쉽게 점령될 수밖에 없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이 전한 예언적인 말씀에 따라 유다로 돌아와 있었다 (22:5).

- C. **Inquired of the Lord:** There are nine times where David is described as *inquiring of the Lord* regarding what to do in a specific way (1 Sam. 23:2, 4, 11-12; 30:8-9; 2 Sam. 2:1-2; 5:19, 23; 21:1).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장면은 9 번 기록되어 있다 (삼상 23:2, 4, 11-12; 30:8-9; 삼하 2:1-2; 5:19, 23; 21:1).

- D. **Shall I go and attack?:** This is a remarkable question for David to ask after all that he had recently been through. He could easily have said, “Let them take care of it. I have had a really hard few months.” However, David found a fresh expression and a fresh release of the power of God.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 질문은 최근에 다윗이 겪은 모든 일을 생각하면 놀라운 질문이다. 그는 손쉽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두자. 나는 몇 달 간 너무 힘들게 지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E. He could have reasoned that it is not his responsibility to save Keilah. The king of Israel was responsible. However, David was determined to do what he could do to help. Saul had been neglecting the public safety of Judah because he was preoccupied with pursuing David.

그는 그일라를 구하는 일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면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울은 다윗을 쫓는 일에 사로잡힌 나머지 유다의 공공 안전은 뒷전에 두고 있었다.

- F. **Go and attack:** The Lord led David to attack. Sometimes the greatest solution that God gives us in the midst of the despair and depression is to get more deeply involved in God's purposes and go on the attack by helping people in the kingdom of God. Our natural tendency is to draw back to lick our wounds or to hide away and forget other people's crisis.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주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공격하도록 이끄셨다. 때때로 우리가 절망과 우울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일에 더욱 깊이 들어가서 (역자주: 다윗과 같이) 공격하는 일에 가담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돕는 일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뒤로 물러나 상처를 돌보며 숨거나 사람들에게 닥친 위기를 잊어버리고자 한다.

- G. **Afraid:** David's men were afraid in Judah because they felt vulnerable to being attacked by Saul, thinking, "If we go to Keilah to fight the Philistines, then we will be surrounded with the Philistines on one side of us with Saul attacking from the other side." However, they stayed there in order to obey the prophetic directive to go to Judah (22:5).

두렵거든: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에 의해 공격 당할까 두려워서 유다에 있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만일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그길라로 간다면, 우리는 한쪽으로는 블레셋 군대에, 또 다른 한 쪽으로는 사울의 군대에 에워싸이게 될 거야." 그러나 그들은 유다로 가라는 예언적인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그곳에 머물렀다 (22:5).

1. They were afraid, but the Lord would not let them leave Judah to seek refuge in Moab, Gath, or another city (22:5). God would not let them live in the comfort zone outside of His will.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유다를 떠나서 모압이나 가드, 혹은 다른 도시에서 피난처를 찾도록 하지 않으셨다 (22:5).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뜻을 벗어나서 안전 지대에 머물도록 두지 않으실 것이다.

2. The Lord knew that Keilah in Judah would bring more trouble to David. Yet He commanded David to go there to experience His power, protection, and provision in the midst of trouble.

주님은 유다의 그길라에 가는 것이 다윗에게 더 많은 문제를 안겨줄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다윗에게 그곳에 가도록 명령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보호하심,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셨다.

3. David might have said, "Lord, I do not need more trouble. I need healing right now." The Lord knew that, as long as David focused on himself, he would never be equipped to be a great warrior king after God's own heart, so He commanded David to go to Keilah.

다윗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어려움 겪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다윗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한은, 그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전사이자 왕으로 준비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다. 따라서 그분은 다윗에게 그길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 H. **Mighty blow:** We may see God's power in our life in big and small ways when we least expect it. When I have not felt strong or like reaching out in ministry, the Lord released His power in me.

크게 쳐서 죽이고: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거의 기대하지도 않았음에도 크고 작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내가 강건하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사역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그분의 능력을 내 안에 부여주셨다.

- I. **Leadership lesson:** Our healing is partially found in getting out of the comfort zone to face the enemies of God and help others with their troubles. Some of you are now in the shame or despair of Nob, Gath, or Adullam. The Lord is telling you to rise up and embrace the purpose of the Lord. Do not get overly introspective or draw back, but arise, attack, and find the Lord in midst of this.

리더십 강의: 우리의 치유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안전 지대를 빠져 나와서 하나님의 적들을 맞서며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이들을 도와줄 때 일어나기도 한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지금 늪, 가드 또는 아들람에서의 수치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주님은 당신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목적과 일을 끌어안으라고 말씀하신다. 너무 과하게 자신을 묵상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일어나서, 공격하고,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주님을 발견하라.

### III. THE LORD DIRECTED DAVID TO LEAVE KEILAH TO ESCAPE SAUL (1 SAM. 23:6-13)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도록 그일라를 떠나도록 하심 (삼상 23:6-23)

- A. Saul misinterpreted David going to Keilah to mean that God delivered David into his hands. So Saul called all the people to go to Keilah to besiege the city. The Philistines were attacking Keilah, yet Saul wanted to attack David, for he did not care about the Philistines or Keilah.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로 간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고 잘못 해석했다. 따라서 사울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일라로 가서 도시를 포위하려고 했다. 블레셋은 그일라를 공격하고 있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공격하기를 원했다. 사울은 블레셋이나 그일라에 관심이 없었다.

<sup>7</sup>Saul was told that David had gone to Keilah. So Saul said, **“God has delivered him into my hand, for he has shut himself in by entering a town that has gates and bars.”**<sup>8</sup>Then Saul called all the people together for war, to go down to Keilah to besiege David and his men. <sup>9</sup>When David knew that Saul plotted evil against him, he said to Abiathar the priest, **“Bring the ephod here.”**<sup>10</sup>Then David said, **“O LORD God...<sup>11</sup>will Saul come down, as Your servant has heard?...The LORD said, “He will come down.”**<sup>12</sup>Then David said, **“Will the men of Keilah deliver me and my men into the hand of Saul?”** And the LORD said, **“They will deliver you.”**<sup>13</sup>So David and his men, about six hundred, arose and departed from Keilah and went wherever they could go. Then it was told Saul that David had escaped from Keilah; so he halted the expedition. (1 Sam 23:7-13)

<sup>7</sup>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sup>8</sup>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sup>9</sup>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sup>10</sup>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sup>11</sup>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대로 사울이 내려 오겠나이까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sup>12</sup>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sup>13</sup> 다윗과 그의 사람 육백 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삼상 23:7-13)

- B. David asked if the city he just saved would betray him and turn him over to Saul. They had heard about the massacre at Nob, so they were afraid of Saul, not wanting to risk their families being killed by Saul.

다윗은 자신이 방금 구해낸 도시가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길 것인지 물었다. 그들은 놈에서의 대 학살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고, 따라서 그들은 사울을 무서워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위험을 원하지 않았다.

#### IV. DAVID FLED TO THE WILDERNESS OF ZIPH (1 SAM. 23:14-23)

##### 다윗이 십 광야로 도망가다 (삼상 23:14-23)

- A. David hid in the forest in the Wilderness of Ziph in the territory of Judah (23:14-15). The uncultivated wilderness here included a forest with mountains, along with some desert conditions. Saul was relentless in daily pursuing David to kill him, but God wouldn't deliver David to him.

다윗은 유다 영토의 십 광야의 수풀 속에 숨었다 (23:14-15). 이 개간되지 않은 광야는 산과 수풀이 있었고 어느 정도 사막의 환경과 비슷했다. 사울은 매일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에게 넘기실 계획이 없었다.

<sup>14</sup>And David stayed in strongholds in the wilderness, and remained in the mountains in the Wilderness of Ziph. Saul sought him every day, but God did not deliver him into his hand.

<sup>15</sup>David saw that Saul had come out to seek his life. And David was in the Wilderness of Ziph in a forest. (1 Sam. 23:14-15)

<sup>14</sup>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sup>15</sup>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삼상 23:14-15)

- B. David and Jonathan met for the last time in Ziph (23:16-18). They reaffirmed their covenant.

다윗과 요나단은 십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다 (23:16-18). 그들은 그들의 언약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sup>16</sup>Jonathan, Saul's son, arose and went to David in the woods and strengthened his hand in God. <sup>17</sup>And he said to him, "Do not fear, for the hand of Saul my father shall not find you. You shall be king over Israel, and I shall be next to you. Even my father Saul knows that." <sup>18</sup>So the two of them made a covenant...David stayed in the woods, and Jonathan went to his own house. (1 Sam. 23:16-18)

<sup>16</sup>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sup>17</sup>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sup>18</sup>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삼상 23:16-18)

- C. The men from Ziph offered to help Saul (23:19-23). Saul had been chasing David for many months, and it was getting very expensive. They were looking for Saul reward them.

십에서 온 사람들이 사울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23:19-23). 사울은 다윗을 여러 달 동안 쫓고 있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사울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다.

<sup>19</sup>The Ziphites came up to Saul at Gibeah, saying, "Is David not hiding with us in strongholds in the woods, in the hill of Hachilah, which is on the south of Jeshimon?" <sup>20</sup>Now therefore, O king, come down...and our part shall be to deliver him into the king's hand."<sup>21</sup>Saul said, "Blessed are you of the LORD, for you have compassion on me. <sup>22</sup>Please go and find out for sure, and see the place where his hideout is...I am told he is very crafty. <sup>23</sup>See therefore, and take knowledge of all the lurking places where he hides; and come back to me with certainty, and I will go with you. And it shall be, if he is in the land, that I will search for him throughout all the clans of Judah." (1 Sam. 23:19-23)

<sup>19</sup> 그 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 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sup>20</sup>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sup>21</sup>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홀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sup>22</sup>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sup>23</sup>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삼상 23:19-23)

## V. DAVID FLED TO THE WILDERNESS OF MAON (1 SAM. 23:24-29)

다윗이 마온 광야(황무지)로 도망가다 (삼상 23:24-29)

A. Saul's army of 3,000 men encircled David and his men, trapping them (23:24-26).

사울의 3,000 명의 군사들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둘러싸서 빠져나갈 수 없게 하려 했다 (23:24-26).

<sup>24</sup>So they arose and went to Ziph before Saul. But David and his men were in the Wilderness of Maon, in the plain on the south of Jeshimon. <sup>25</sup>When Saul and his men went to seek him, they told David. Therefore he went down to the rock, and stayed in the Wilderness of Maon. And when Saul heard that, he pursued David in the Wilderness of Maon. <sup>26</sup>Then Saul went on one side of the mountain, and David and his men on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So David made haste to get away from Saul, for Saul and his men were encircling David and his men to take them. (1 Sam. 23:24-26)

<sup>24</sup>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sup>25</sup>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sup>26</sup>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삼상 23:24-26)

B. God distracted Saul with the Philistines (23:27-29).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 사울의 관심을 끄셨다 (23:27-29).

<sup>27</sup>A messenger came to Saul saying, "Hurry and come, for the Philistines have invaded the land!" <sup>28</sup>Therefore Saul returned from pursuing David, and went against the Philistines; so they called that place the Rock of Escape. <sup>29</sup>David went up from there and dwelt in strongholds at En Gedi. (1 Sam. 23:27-29)

<sup>27</sup>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sup>28</sup>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 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sup>29</sup>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삼상 23:27-29)

## VI. PSALM 54: VICTORY OVER THE ENEMY

시 54 편: 적들에 대한 승리

- A. *The superscription for Psalm 54: "A contemplation of David when the Ziphites went and said to Saul, "Is David not hiding with us?"* These were the ones who helped Saul against David. Their decision to stand for Saul and against David defined their city and affected their future.

시 54 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크일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이다. 십 사람들은 사울을 도와 다윗을 대적하던 자들이었다. 그들이 사울의 편이 되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의 도시가 어떻게 될지에, 또 그들의 미래를 영향을 끼쳤다.

- B. We see what David was thinking and feeling in the midst of his conflict and pressures with Saul.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사울과 충돌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를 볼 수 있다.

- C. David's prayer for deliverance from his enemy, Saul (54:1-3): David was being falsely accused, so he asked the Lord to vindicate him, set the record straight, and not let the lies about him prevail.

다윗이 자신의 대적 사울로부터 구원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54:1-3): 다윗은 거짓 정죄를 받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는 주님이 그를 변론하고 보호해주시기를 구하며, 그에 대한 사실을 바로잡아주시며, 그에 대한 거짓말이 승하지 못하도록 해주실 것을 구했다.

<sup>1</sup>Save me, O God, by Your name, and vindicate me by Your strength...<sup>3</sup>For strangers have risen up against me, and oppressors have sought after my life; they have not set God before them. (Ps. 54:1-3)

<sup>1</sup>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sup>3</sup>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시 54:1-3)

1. **Your name:** David was interacting with a real Person, not just a mechanical, saving power. God's name speaks of His personality, power, and attributes. By meditating on God's name and declaring it over our situation, we are calling Him into the situation.

**주의 이름으로:** 다윗은 단지 구원하시는 능력 그 자체와 기계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한 분 인격과 대화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 능력, 속성을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묵상하고 이를 우리의 상황을 향해 선포함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우리 상황 안으로 모셔오게 된다.

2. **Oppressors:** The oppressors who sought David at Ziph were Saul's 3,000 soldiers.

**포악한 자들이:** 십에서 다윗을 쫓았던 이 포악한 자들은 사울의 3,000 명의 병사들이었다.

3. **Not set God before them:** These men had not set God before their eyes. In other words, they did not fear the Lord. They feared Saul much more than they feared the Lord. David understood that their zeal to destroy him was rooted in the reward that they might receive from Saul. Ultimately the issue was about their lack of relationship with the Lord, not about how bad David was or how much they hated him. David saw them not just as men who were betraying him, but also as men who did not have a relationship with or history in God.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 즉,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울을 더 두려워했다. 다윗은 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열심이 사울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궁극적인 문제는 다윗이 얼마나 나빴다거나 그들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는지가 아닌, 그들이 주님과 관계를 이어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다윗은 그들을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사람들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온 시간도, 관계도 없는 자들로 보았다.

- D. David looked to God as his helper or source (54:4-5). This insight changes how we carry our heart. One plus God is a majority. David found his champion in the Lord. He did not see Saul, the Ziphites, or the men of Keilah as his source of safety or blessing. This kept him free from bitterness.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을 돕는 자이며, 삶의 근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54:4-5). 이 관점은 우리가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진리가 된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발견했다. 그는 사울이나 십 사람들, 혹은 그일라 사람들을 자신의 축복과 안전의 근원으로 보지 않았다. 이 관점 때문에 그는 쓴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sup>4</sup>**Behold, God is my helper; the Lord is with those who uphold my life. <sup>5</sup>He will repay my enemies for their evil. Cut them off in Your truth. (Ps. 54:4-5)**

<sup>4</sup>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여 주시는 이시니이다 <sup>5</sup>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시 54:4-5)

- E. David set his heart to praise God instead of yielding to condemnation, fear, or complaint (54:6-7).

다윗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54:6-7).

<sup>6</sup>**I will freely sacrifice to You; I will praise Your name, O LORD, for it is good. <sup>7</sup>For He has delivered me out of all trouble; and my eye has seen its desire upon my enemies. (Ps. 54:6-7)**

<sup>6</sup>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sup>7</sup>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시 54:6-7)

- F. **For it is good:** It is good to set our heart to praise or thank God for who He is, what He has done for us, and what He will yet do. This realigns our heart and causes us to set our eyes on Him instead of being preoccupied with how hard things are, or what we lack, or what we are waiting for.

선하심이니이다 (NKJV 직역: 이는 선한 일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에 대해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맞춰주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어려움이나 부족한 점, 또는 우리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일에 사로잡혀 있기보다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준다.